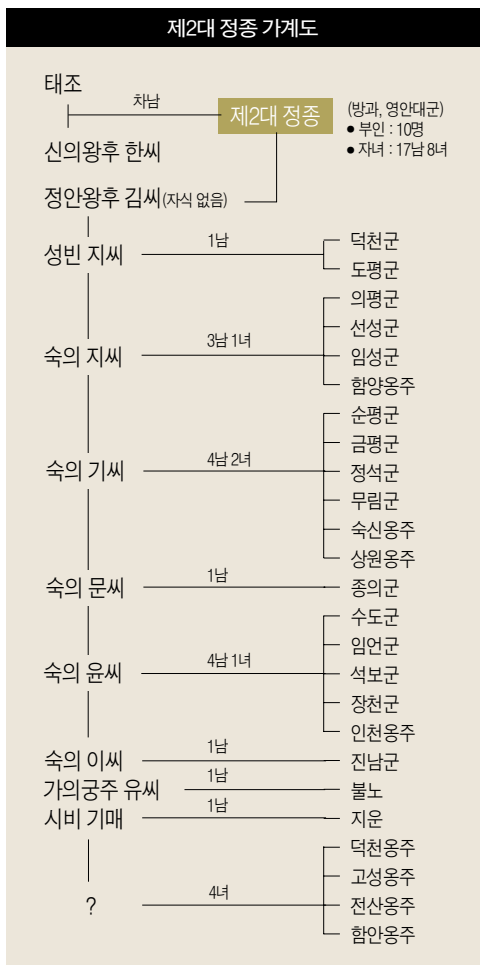


# 권좌에서 뛰어내려 마음 비우니 천수 누리네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

2대 정종 (1357~1419, 63세, 재위기간 2년 2개월, 1398.9(42세)~1400.11(44세))



원치 않던 권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슬이슬한 칼날 위에서 그는 훌쩍 뛰어내렸다.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여론을 슬쩍 떠보니, '전하, 고정하시오 소서!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시오니까, 신들의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오니이다.' 입에 발린 간언을 주유소에서 받은 1회용 휴지처럼 내쳤다.

조선 역대 왕 중 매력 없는 왕의 순위를 매기려면, 정종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어딜 둘러보아도 야심, 패기, 술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 2대 정종이란 묘호가 아깝다. 그래서 묘호를 얻는데 262년이 걸렸다. 40대 초반에 2년2개월 동안 왕위를 있다가 63세에 죽었다. 죽은 후 오랫동안 묘호도 없이 공정왕으로 불리다가 1681년(숙종7년)에 정종이란 묘호를 받

았다. 정종은 방원이 왕권을 접수하기 위해 잠시 머문 부교(浮橋)였다.

왕위를 물려 줄 다음 타자는 당연히 방원이다. 정종에 의해 1400년 2월에 방원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세제가 아닌 세자가 된 이유는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당시 조정 분위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방원이 정종의 왕위를 이었지만 실제로 태조의 세자로 왕위를 이었다는 것이다. 권력은 정취하는 것이 영감결에 들어선 잔치집에서 받아든 밤사이 아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동생에게 왕위를 내 주었으니 기분 참 더러웠을 것이라? 아버지 이성계의 역성혁명, 왕자의 난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는 피비린내의 근원,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 목숨을 걸어도 금메달은 한 개 뿐이다.

그 역시 무장(武將)이다. 청년 시절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했고 1390년 장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밀직부사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성품이 근실하고 지행이 방정했다. 음모와 야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날 뻔한 살육전을 피할 수 있었다. 자리를 탐하는 측근도 두지 않았다.

1차 왕자의 난이 성공을 거두고 세자 책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는 이미 판세를 읽었다. 그래서 진중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당초부터 대의를 주장하고 개국하여 오늘에 이른 업적은 모두 정안군(방원)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방원은 흐느끼며 간청한다.

"큰 형님(방우)이 돌아가시고 없는 마당에 형님이 장자십니다. 형님이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합니다. 앞드려 비오니 내치지 마십시오."

방원의 속내를 어찌 모르랴. 그에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화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를 아버지를 위해 내가 잠시 방원의 다리가 되자. 내 등을 밟고 옥좌로 가거라. 실권은 이미 네게 있으니, 나는 잠시 세탁소에서 빌린 용포를 입고 사진 몇 장 찍고 물러나리라.

스스로 다짐한 그 각오를 지켰다. 세력을 모으는 김씨가 있으면 야망중이라도 방원의 수하들이 갈을 들고 침전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내관들마저 방원 측 인물들이다. 정비 정안왕후 김씨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다. 이것도 그들이 천수를 누리 이유다.

2년 2개월의 짧은 권한 대행을 마치고 정종은 상왕이 된다. 편하고 자유로운 상왕 노릇을 19년간 했다. 동네 목욕탕에도 맘대로 웃고 갈프 한 번 치러 나갔다가는 기사들이 두리치처럼 따라붙어 구슬수를 만들어내는 전직 대통령들은 정종이 한없이 부러울 것이다.

3대 임금으로 즉위한 방원은 정종을 상왕으로 삼고 예우를 극진히 했다. 1400년 12월 상왕전에 나아가 '인문공예상왕'이란 존호를 올리고 이르기를,

"태조에 이어 정사에 나아가 나라를 평안케 하



정종은 풍류객이었다. 노년을 사냥, 격구, 온천여행으로 보냈다. 사진은 마상무예팀의 사냥시범(현대).

## 권력의 속성 알고 있는 정종, 자리 탐하는 측근 두지 않아 왕위 짧았지만 19년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왕 생활 누리

고 소자를 보전케 하셨으며 인애를 다하여 즉위토록 명하셨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도를 즐기시고 한가로이 지내시면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 시우소서. 충심에서 우러난 소원이오니 굽어 살피시고 다복한 상서를 받으소서."

이것은 방원의 진심이었다. 권력을 얻은 자의 야망과 시혜였다. 정종은 그 뜻을 답답하게, 흔쾌히 받아 실행했다. IOC 위원, 왕권 홍보대사란 직책이 있었던 다면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 상왕은 격구, 사냥, 온천 여행, 파티의 고수였다.

정종보다 7년 먼저 죽은 정안왕후 김씨는 사려 깊고

공손한 성품의 여인이었다. 덕행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애로써 친족과 친교를 두텁게 했다. 집안이 한미한 것도 아니다. 고려 공민왕 때 문하좌시중(부총리) 월성부원군 김천서의 딸이다. 김씨는 정종의 즉위 때부터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뿔뿔하게 어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정종은 부인을 달랬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



후릉 근경. 고려공민왕 능을 닮았으나 상태가 좋지않다.



능의 제2단에 문인석(왼쪽)을, 제3단에 무인석을 배치.

도 않니다. 그러나 방원의 뜻이 하늘의 뜻보다 강하니 어찌겠소."

왕위에 앉은 2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뛰어 내릴 궁리만 했다. 권력을 위해서 세계적 수치를 안으로 삭힌 미시스를 린턴 힐러리닝과 대비된다. 그들은 천수를 누렸다. 정종 63세, 김씨 58세에 죽었다.

정종은, 무능하고 겁 많은 소인배인가, 시대의 코드를 읽은 대장부인가? 함람미답인 인사들도 주변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대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다. 출마가 직업인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는 못 봤다.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스포츠다. 마라톤 완주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잠깐 모르고 '못 먹어도' 라고 설치하는 정경은 공공의 적, 자문의 원수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후릉은... 후릉 가는 길은 지금 없다. 북녘땅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에 있다. 죽어서도 왕따다. 후릉은 당대 명건축가 박자청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태조의 현릉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현릉을 보면 북녘에 있는 후릉을 본 셈이 된다. 두 쌍의 문인석, 무인석의 모습도 현릉과 다르지 않다. 병풍석을 통했으며 면석에 12지상을 새겼고 왕과 왕비의 능에 각각의 정명등을 세운 것, 홍유석 받침돌(고석)이 5개인 조선 초기 양식이며 이는 고려 왕릉의 형식을 답습한 것이다.

## 六壬

### 特別講座 受講生 募集

基礎부터 實戰 専門家 水準까지!!!  
人事, 處世術을 通察케하는 明快한 講義!!

**입학안내**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 ◆ 모집인원 : 00명
- ◆ 수강료 : 30만원
- ◆ 교육기간 : 12주 (3개월)
-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六壬 理論 오전 10시 ~ 오후 1시 ※ 명리·대체의학 특강 수시
- ◆ 교육장소 : 라이프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 종로구 송인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 ◆ 개강일 : 2007년 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 ◆ 접수문의 : 라이프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2
- ◆ 담당교수 : 육임문저자 직강 / 이우상 019-514-5557 명리특강 / 철학박사 이춘복 011-1763-3567

◆ 특 전

- ◇ 수료생 전원 동방철학연구학회 정회원 가입 및 동문회 결성
- ◇ 자격 심사 후 학회 명의 자격증 취득 가능
- ◇ 미국 LU 대학교 교육과정 인증 및 한의학·대체의학 유학 가능
- ◇ 수료 후 창업컨설팅 상담 지원

한미교육교류재단  
**라이프평생교육원**  
Life Institute For Continuing Education  
www.lifeschool.co.kr

##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기치로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기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 ▶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 ▶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 ▶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 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 탈종공고

서울에 시공하고 가볼때 무료인 탈종을 받가로 '2,000 x 400 x 330(mm)' 높 150c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50% 폭탄세일

무관 조립이 간단한 평상 대 1800 x 1030 x 350(mm)  
가격:490,000 폭탄세일가격 : 95,000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로 청소하는 평상 중 1500 x 820 x 350(mm)  
가격:490,000 폭탄세일가격 : 65,000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경시상품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ero.com/원주목.kr/평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권영호

- 사찰명 : 보원정사
- 법 명 : 보원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215-2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법하